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 '조선 민주
여성동맹'(여맹)의 활동양상을 중심으로

The Educational Lea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Women: Centering around the
Activity of North Korean Women's Alliance

이 미 경 (Lee, Mi-kyung) *

(E-mail : basam@chol.com)

논문접수일 : 2008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25일

* · 학위취득대학 : 이화여대
현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 ‘조선 민주 녀성동맹’(여맹)의 활동양상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여성이 양성불평등의 지위 속에 사회노동과 가사노동 등 이중의 역할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를 살펴보았다. 사상우위의 북한체제에서 사상교양학습은 주민을 국가가 원하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사회화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은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시기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여성을 만드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교양, 각종 난관에도 사회주의체제는 승리한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의 사회주의 도덕교양, 대내외 적과의 투쟁의식을 강화하는 계급교양, 여성본연의 임무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을 위한 교양 등의 내용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결과 북한여성은 불평등한 지위 속에 이중역할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체제순응적인 멘탈리티를 지녀 경제난이후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가부장제적 질서유지에 저항의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인 생활방식과 의식이 확산되고 북한정권이 과거와 같은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차 변화가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여성, 교양학습체계, 체제순응성, 가부장제적 사회주의, 이중역할부담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북한여성이 정권수립초기 건설과 혁명의 역군으로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해온 이래 최근 경제난이후 생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양성평등의 지위를 구축하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북한여성은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기능하면서도 종속적인 지위 속에 과중한 역할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체제순응적인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특성은 경제난이후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쉽게 와해되지 않았다. 경제난이후 대부분의 북한여성은 식량과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고 장사 등의 자력구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¹⁾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가사와 육아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재고하는 한편 남편들도 가사와 양육 등에 참여하고 아내의 장사를 도와주는 등 가정생활에 변화가 가해졌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부정 혹은 이를 변화시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의식변화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²⁾

- 1) 이것은 봉급이 끊긴 상태에서도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었고 또 이미 이전부터 가내작업만을 통해 부업으로 소규모의 가내수공업과 장사 등을 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됐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Lee, Mi-kyung, *The Issue of North Korean women by examining gender awareness of female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5 N5, 2005, pp.160-1.
- 2) 경제난이후 북한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여성들은 생계책임자가 되면서 이전의 엄격한 성별분업에 대한 의식은 깨어졌지만 가사와 육아를 비롯한 가정의 화목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처럼 남편을 섬김의 대상으로까지 인식하지 않지만 가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심지어 북한여성들은 이전보다 경제주체로 역할을 하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미경,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이런 점에서 북한여성의 문제는 종속적인 지위 속에 이중역할부담을 안고 있다는데 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선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와 같이 공식적인 법적 평등,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마련 등이 사회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사전에 봉쇄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성별분업구조를 지속시킨 채 여성의 사회활동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여건을 국가가 마련해주는 가부장제적 사회주의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여성의 순응적인 의식은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연유된다고 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북한체제가 어떤 내용과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사회화하여 이를 유지, 재생산시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상의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정치우선, 사상우선의 북한체제에서 교양학습체계는 체제유지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사상을 우선시하는 북한사회에서 공식규범 혹은 통치담론은 위로부터 교육되어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대중학습체계라는 성인교육망을 통해 전체 사회에 주입되고 있다. 북한에서 대중학습이 진행되는 조직적인 틀은 당과 당이 지도하는 근로단체들이고 대중학습은 생활총화, 정치학습, 기술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조선로동당 당원들은 당의 사상을 교육받으나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당원 대중은 직업, 계층, 성, 연령에 따라 조직된 근로단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학습체계가 구축된다. 근로단체는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자 당의 외곽단체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이자 당의 방조자’이며 그 역할은 ‘당의 지도하에 대중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은 이익집단이 아닌 사상교양단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 47권2호(2004년 통권 116호) pp183-212.

이 같은 대중학습을 통한 사상교육은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등 북한지도부가 원하는 체제작동논리를 대중에게 설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사상교양학습은 주민을 사회와 국가가 원하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사회화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체제순응적인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됐는지는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의 대중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의 활동양상을 중심으로 북한여성들에게 행해졌던 교양학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을 분석하여 북한여성이 사회화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³⁾

II. 교양학습 담당기관: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

북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회화기관은 정규학교이외 여성대중조직인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여맹-이다.⁴⁾ ‘여맹’은 여성의 노동력동원을 위한 의식화와 사회적 기반마련에 주력하는 국가와 당 정책수행을 위한 사

-
- 3) ‘여맹’은 가두여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조직으로서 북한여성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여맹원에게 행한 교양학습의 내용과 방식은 북한당국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포괄한 여성정책의 일환에서 취해진 것이므로 여맹의 교양학습은 가두여성만이 아닌 북한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북한여성들의 정규교육기관외의 사회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학전 어린이들의 탁아소,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 수준의 7-13세 소녀는 소년단에, 14-30세의 여성 중 청소년층의 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직장여성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에 31-60세의 협동농장원 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그리고 31-60세의 모든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여맹)등의 공식적 외곽단체들의 사회교육단체에 참여한다. 이 밖에 여성의 사회교육기관으로는 1961년 설립된 어머니학교(처음엔 위생문제 등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이후 여성에 의한 자녀와 남편의 교화책으로 여성의 사상개조와 가정의 사상개조사업을 적극 추진)와 각 동의 인민위원회 산하 인민반 등이 있다.

회단체이다. 1945년 11월 18일 창립된 북조선 민주주의여성동맹은 이후 1951년 1월 남조선 민주녀맹과 통합되어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개편되었다.⁵⁾ 여맹위원장은 초대위원장 박정애로부터 김옥순(1965-71), 김성애(1971-98), 천연옥(1998-2000)에 박순희(2000-2008), 노성실(2008-)로 이들 모두 국가기구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들로서 본인 혹은 가족이 항일운동의 경력을 소유한 자들이다.⁶⁾

‘여맹’의 기능과 특징은 ‘여맹’의 강령과 규약 속에 드러나 있다. 1946년 5월 제 1차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주 내용에 의하면 ‘여맹’의 결성목표는 여성을 국가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봉건의식타파, 계급교양 등의 계몽과 교육, 선거권 등의 부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있다.⁷⁾ 북한은 정권수립초기부터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법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

5) 결성 이후 ‘여맹’조직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과 같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활동의 부침을 겪게 된다. 1983년 5차 대회에서(6.27-29 위원장 김성애) 여맹원의 가입대상이 18세 이상의 여성에서 다른 근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으로 바뀌면서 여맹원의 수가 크게 감소되는 한편 ‘여맹’활동이 위축된다. 이것은 당시 김정일 후계체제가 성립되던 시기 ‘여맹’위원장인 김성애의 위상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6) 박정애, 김성애, 천연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직을, 김옥순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여성지도자들로서 북한의 다른 권력층과 마찬가지로 출신성분이 좋아 박정애는 모스크바유학생 김용범의 처, 김옥순은 유격대활동을 한 최광의 처, 김성애는 김일성의 후처, 천연옥은 빨치산 유가족 출신이다. 정성임, ‘조선민주녀성동맹’,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한울아카데미, 2003) p.219 (노성실은 08.3.27. 여맹중앙위 52차 전원회의에서 박순희 위원장 해임 소환 후 새로 선출됨 ‘08.3.28 중앙통신 보도).

7) ‘여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민주주의적 여성과 대등 단결하여 김일성 장군의 20개 정강을 기조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위하여 총역량을 집중함. 2. 여성들에게 평등한 선거와 피선거권을 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강을 지지하며 이 명예를 전 여성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분투함. 3. 우리는 민주건설을 파괴하는 일체의 파쇼분자 민족반역자를 박멸하기 위하여 분투함. 4. 조선문화의 향상과 정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분투함. 5. 여성의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을 위하여 각 문화운동과 산업부흥에 적극 참가함. 6.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타파를 위하여 노력함 『조선여성』(1946.9).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를 법제화하였다.⁸⁾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은 사회활동의 참여로 부여된다는 전제아래 여성을 혁명과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모두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조직생활이 요구되어 ‘여맹’의 참여는 의무적이나 자원의 형식을 취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의식화와 조직적인 통제가 행해진다. 여성들에게 ‘여맹’의 참여를 통한 당의 노선과 정책 실현이 여성의 해방과 권익향상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여맹’활동의 독려하는 여맹원 개개인에 지도와 역할부여를 통해 조직생활을 유도하는 한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뤄진다.⁹⁾

‘여맹’이 여성을 교양하고 필요에 따른 동원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여맹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약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여맹’의 규약은 북한당국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항들로서 교양학습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여성은 혁명과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로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혁명 후비대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맹원의 의무규정에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조항이 총 13개

8)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사회주의혁명의 일환으로 여성해방과 지위향상을 위해 문맹퇴치사업과 선전교양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토지개혁법령’(1946.3),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률’(1946.7),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6), ‘사회보험법’(1946.12) 등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pp. 69-79.

9)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워’-장풍군 제 4탁아소 녀맹초급단체사업에서- 『조선녀성』 (1974-8); ‘주동맹생활총화를 짜고 들어’ (『조선녀성』 1974-9); ‘녀맹생활총화를 실속있게 짓도록’ 『조선녀성』 (1975-3); ‘생기약동하고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구장지방산업종합공장 식료직장 초급녀맹위원회사업에서- 『조선녀성』 (1975-6);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간다’-대관군 량상리초급녀맹위원회에서- 『조선녀성』 (1976-3).

10)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규약해설은 『조선녀성』 1966. 9-1967. 8 월호에 8차례 걸쳐 해설되어 있다.

가운데 6개이다.¹¹⁾ 또한 여맹원의 의무규정에는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등의 교양학습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고¹²⁾ 모성의 역할수행에 관한 조항과¹³⁾ 북한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원칙과 규범준수 그리고 여맹조직원으로서 조직규율의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조항 등이 있다.¹⁴⁾

-
- 11) “《녀맹원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녀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소유하며 로동을 즐기고 영예롭게 생각하며...》”, “《녀맹원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 생활하는데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법령과 로동규율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 》”, “《녀맹원은 사회주의 건설과 천리마작업반 (인민반) 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 “《녀맹원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문화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등 여맹원의 의무규정 1,6,8,9, 10,11 조항은 사회노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녀성』 (1966-.9;1967-4,5,6).
- 12) “《녀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심오히 연구하고 공산주의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녀맹원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항상 혁명 투사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며 일하여야 한다》”, “《녀맹원은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증오하고 반대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등 “여맹원의 의무규약 제 3, 4, 5조항에는 여성들의 계급 투쟁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상, 계급, 혁명전통 등 교양학습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녀성』 (1967-1,2).
- 13)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을 양육하는 영예로운 책임을 옹기 간직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낼 풍부한 지식과 능란한 솜씨를 소유하며 어린이들을 항상 정성들여 깨끗이 거두고 건강하게 키우며 후대들을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는 의무 7째 조항은 혁명후비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여성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녀성』 (1967-3).
- 14) “《녀맹원은 녀맹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녀맹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기의 조직정치생활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소유하며 로동을 즐기고 영예롭게 생각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조선 녀성들의 전통적인 미풍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의무조항 13, 6 은 사회주의체제유지에 필요한 제반원칙 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녀성』 (1967-8).

12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집

III. 교양학습의 주요 내용

정권수립초기 북한여성에 대한 교양학습은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준비작업으로서 여성의 사상수준과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문맹율을 높이는 한편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인습을 없애기 위한 봉건의식타파와 문화계몽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 어머니 학교를 운영, 학습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의 독려 뿐 아니라 아동교양과 위생문제 등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양하였다.¹⁵⁾ 어머니학교는 1959년 6월 4일 "어머니학교는 여성들을 교양하기 위한 좋은 근거지, 중요한 교양거점입니다" 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여성을 혁명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¹⁶⁾ 어머니학교를 비롯한 '여맹' 등 북한의 여성조직을 통해 행해진 교양학습은 여성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 사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체사상교양 :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교양

북한여성에게 행해진 교양학습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교양과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함양교양 등 일반적인 사상교양과 문화계몽 이외

15) '어머니학교와 녀맹단체-평남도강서군 강서편직물생산협동조합 녀맹단체에 서- 『조선녀성』 (1963-1).

16) 어머니학교는 동에서는 인민반, 리에서는 직업반별로 한 달에 2번 이상씩 개최되어 1977년에는 9만 3천여 개가 개설되었다. 『조선녀성』에 소개되고 있는 '어머니학교'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 학교에서 여성들에게 행한 교양학습의 내용은 문맹퇴치를 비롯한 혁명계급화하기 위한 교육,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위생, 보건문제, 옷, 음식 만드는 법, 탁아소운영, 여맹사업에 관한 것 등으로 여성을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저작집』 23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47-8 '여성들의 훌륭한 배움터'; '존경받는 어머니학교 강사' 『조선녀성』 (1974-7, 1972-10).

에 여성 본연의 임무로 간주되고 있는 가사, 양육 등 전통적인 성역할수행을 위한 교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주체의 교양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을 공산주의 인간형-주체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일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에와 동지애로 무장했으며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이다. 따라서 북한여성에게 행해진 교양학습의 내용은 주체형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고, 주체형의 인간의 핵심은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므로 이를 합리화하는 주체사상교양이 주류를 이룬다.

북한유일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은 원리교양, 혁명적 수령관교양, 사상창시자의 혁명역사교양, 계급교양, 당 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등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포괄하고 있다.¹⁷⁾ 주체사상교양은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주체사상의 내용을 주민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대내적 자립을 토대로 대외적 자주를 구현한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일인의 통치인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 주체사상교양의 주 내용은 최고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에게 행해진 다양한 종류의 사상교양은 지도자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기 위한 김일성, 김정일의 노작과 기본강령 그리고 당의 노선에 대한 학습이다.¹⁸⁾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에서 충실성교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실무수준보다 충실성에 달려 있다”, “너맹 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은

17) 김승문,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 정치사상생활방식의 근본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52권 제 2호 (2006);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동지의 문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pp.155-58.

18) ‘너맹원들과 녀성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자!-너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녀성』 (1967-7).

전 동맹을 수령절대숭배, 수령 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된다”는 등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¹⁹⁾ 지도자의 충실성교양은 경제난이후 더욱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정숙 따라 배우기’가 강화되었다. ‘김정숙 따라 배우기’는 1970년대부터 주창되어 1998년 김정일 집권이후 재차 강조됐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²⁰⁾ 우선 1970년대 김정숙에 대한 칭송은 유일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작업이 그의 가계로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고 1990년대 말은 경제난이후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제도 등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정권의 정당성 약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연장선에서 강화되었다.

‘김정숙 따라 배우기’의 주요 내용은 혁명투사로서 혁명가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모성으로서 그리고 수령인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것이나 이 중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가장 핵심적이다.²¹⁾ “김정숙 동지께서 지니신 사상 정신적 풍모에서 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며 수령님

19) ‘시대의 참된 너맹일군’ 『조선녀성』(1995-3); ‘실력가형의 참된 너맹 일군’- 안주사 너맹위원회 위원장 김옥순동무- 『조선녀성』(2000-4);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너맹 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조선녀성』(2002-6).

20)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김정숙에 대한 칭송과 따라 배우기를 권하는 글이 『조선녀성』 속에 등장한 것은 1975년 12월 호에 ‘김정숙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라는 시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시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의 말씀 중에서’ 등이 게재되면서부터이나 이후 한동안 『조선녀성』에 등장하지 않다가 1979년 9월 호에 ‘녀사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등이 게재된 이후 본격적으로 김정숙의 행적이 칭송되었다. ‘항일의 녀성여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주제의 칼럼으로 김정숙을 여성의 role model로 재차 강조하여 『조선녀성』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2월호부터 2008.5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1)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와 ‘조국개선의 나날에’, ‘숭고한 모습 우러르며’ 『조선녀성』(1980-12);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귀감이신 김정숙 녀사를 따라 배우자’, ‘혁명전사의 기쁨’ 『조선녀성』(1981-9,10).

의 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해 온몸, 온 정신을 다 바쳐 오시었다”. 등의 김정숙에 대한 칭송은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²²⁾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북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특성 상 당연한 것이나 특히 지도자가 여성해방과 지위향상을 부여한데 대한 보답차원과 여성해방과 지위향상은 지도자의 영도를 따라야만 할 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은 지도자의 배려에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²³⁾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는 배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지도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독려되고 있다.²⁴⁾

22)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녀맹원들을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선녀성』(2006-5).

23) 『조선녀성』에는 지도자가 여성을 각종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결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례소개와 이에 감사하는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 ‘녀성들을 부업일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1977-4), ‘남녀평등의 보람찬 삶을 안겨 주시여’(1979-7), ‘녀성해방의 위대한 은인’(1980-4), ‘나라의 주인 혁명의 역군’(1985-2), ‘녀성로동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며’(1991-2), ‘가정부인들이 보다 흥겹고 험하게 일하도록’(1993-3), ‘녀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여’(1993-5), ‘이복은 민중의 락원이고 녀성들의 천국이다’(1993-5), ‘어엿한 녀성 일군으로 키워 주시여’(1998-3) 등.

24)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는 우리 녀성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조선녀성』(1966-10), ‘녀맹원들과 여성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진사로 교양하자!’ 『조선녀성』(1967-7),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조선녀성』(1974-4),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조선녀성』(1974-8), ‘또 다시 만풍년을 이룩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녀성』(1975-1),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주체형의 녀성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조선녀성』(1975-3), ‘녀성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끝없는 행복을 길이 전하며 그이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조선녀성』(1976-6),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조선녀성』(1976-10), ‘모든 녀성들은 혁명임무수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자’ 『조선녀성』(1978-7),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조선녀성』(1980-1); ‘우리 수령님과 녀성들’ 『조선녀성』(1985-2), ‘친애

또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유일지배체제의 이론적 토대인 주체 사상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²⁵⁾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혁명적 수령관과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인민대중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북한주민 모두에게 제일의 덕목이다.²⁶⁾ 이 같은 논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양학습은 북한여성들에게 체제순응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한편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2. 전통적인 성역할 교양

북한여성에게 강조된 교양학습의 주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은 북한정권 수립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여성 본연의 임무로 강조돼 왔으며 다음의 여성의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가족의 순기능 역할을 강조한 글에

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것은 녀성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 『조선녀성』(1994-1), ‘보답할 한마음’ 『조선녀성』(1995-3), ‘강서땅의 효녀들’ 『조선녀성』(1998-2), ‘권리이기 전에 의무로’ 『조선녀성』(2001-7) ‘보답과 의리로 사는 녀성’ 『조선녀성』(2005-12).

- 25) 북한체제특징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수령으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김일성-김정일)가 이데올로기, 법, 제도, 규범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제 혹은 유일지도체제라 할 수 있다. 스톱키 마사유키(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と 傳統の 共鳴』(동경대 출판부, 1992), 유영구(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중앙일보사, 1995). pp. 71-102.
- 26)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행동하는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활동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후자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영생하는 것으로 수령부터 받는다. 즉 수령, 당, 대중은 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아버이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종석, pp.216-21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백산서당, 1989).

잘 나타나있다.

“... 여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진하며 화목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여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여성들이다.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여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여성들이다.”²⁷⁾

위와 같은 성역할의 강조는 가부장제적사회주의라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사회의 핵심은 가족’,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세포’ 등으로 표현되듯 사회와 가족은 불가분의 통일관계에 있다.²⁸⁾ 국가와 사회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반면 가족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사회주의 가족론에 근거하여 가족은 건전하고 훌륭한 자녀세대의 육성을 실현해야 하며 이에 주 전담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²⁹⁾

여성에게 희생, 봉사, 헌신 등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은 경제난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추진된 가정의 혁명화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³⁰⁾ 가정의 혁명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 것”이며³¹⁾ 이에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조된 것은 자력갱생의 생계유지와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체제의 운영부담이 가정에 전가되면서이다. 특히 이 시기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 전통적인 성역할은 물론이고 웃어른공경, 혁명

27) 『조선여성』 (1999-3) p.15.

28) 이 규정은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 제 6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법령집』 1권 (대륙연구소, 1990).

29) 전상인, 『북한의 가족정책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pp.52-54.

30) 여성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 장려하는 것은 특정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강조되는 교양학습이었다. ‘지성어린 이야기-안주군 상서협동농장 량정숙동무-’, ‘부지런한 주부-강계시 북문동 리리순 동무-’ 『조선여성』 (1966-11).

31) “가정혁명화와 여성들의 책임” 『조선여성』 (1999-3).

전사의 존중 등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로까지 확대시켜 강조되었다.³²⁾

북한여성에게 강조된 성역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성의 역할로서 이에 대한 강조는 경제난이전과 이후 모두 여성 교양학습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북한당국은 여성에게 체제가 원하는 구성원의 양육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시기별 국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역할독려를 위해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였다. 1961년 11월 제 1차 대회에서는 다산을 권장했고 1998년 9월 제 2차 대회에 이어 2005년 11월 제 3차 대회에서도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녀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다 출산 권유는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에 따라 인구급감이 두드러진데 따른 것이고³³⁾ 김정일 집권이후 총대가정의 요구는 선군정치의 구현에 따라 다자녀를 군인으로 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³⁴⁾

32) 『조선녀성』에 게재된 전통적인 성 역할 가운데 모성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은.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주장아래 숭선수범하여 자녀의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조가 주류를 이룬다. ‘《거울》에 비긴 모습’, (1994-3);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1995-5) ; ‘어릴 때부터’,(1996-6) ;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 (1998-1); ‘자랑스러운 조선 녀성들의 모성에’,(1999-1); ‘어머니는 자녀들의 첫 교양자’ (2003-3) ; ‘충성 동이를 키우자’, (2002-2); ‘거울이 될 때’, (1999-3); ‘공중도덕과 어머니’, (1999-4);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2000-3);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2003-5); ‘그 어머니의 그 딸’, (2001-8); ‘우리 어머니, 우리 며느리’, (2001-9); ‘가정의 거울’, (2004-1); ‘그 어머니의 그 딸’, (2004-6).

33) 임신여성과 산후 1년까지의 산모, 4살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우선공급, 4명이상자녀를 둔 여성에게 아이 수에 따르는 특별보조금 지급, 아이가 3명일 경우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휴직제 실시, 4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의 사회적 노력동원 면제, 3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우선배정 등 경제난이후 북한당국은 다 출산 권유를 위해 다산여성에게 특별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4) ‘새 세대를 우리 당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총대병사로...’, 모든 녀성들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군사를 중시하며 자기의 자식들을 훌륭한 병사로 키워야 한다”는 등 총대가정 형성은 선군정치 시기 여맹의 주요 과업중 하나로

한편 경제난이후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조는 이혼율 급증과 같은 가정의 해체로 야기되는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부간 지켜야 할 예절과 도덕 혹은 바람직한 부부관계- 혁명적 동지관계-를 권장하는 한편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 등의 강조로 이어졌다.³⁵⁾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여성의 본연의 임무로 강조하는 교양학습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하는 체제순응적인 구성원으로 사회화 하는 것이었다.

3. 계급교양

북한여성에게 강조된 교양학습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계급교양이다. 북한에서 계급교양은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업”으로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며 특히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의 통합을 기하고자 하는 체제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혁명성과 투쟁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행해진 계급교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별로 약간 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정권수립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해 자본가계급과 지주, 친일세력과 같은 반 사회주의 세력과 투쟁을 강조하고 전쟁직후부터는 반제국주의와 함께 특히 반미주의를 내세워 미국과 친미세력과 적대감과 투쟁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가 미 제국주의자들을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

강조되고 있다. 노동신문 2006.3.8; 조선중앙방송. 2005.11.17.

35) ‘부부는 혁명동지’ 『조선녀성』 (1995-4); ‘《백년가약》이라는 말을 두고’, 『조선녀성』 (2002-7) ; ‘원앙새부부’ 『조선녀성』 (2002.11); ‘가정의 행복을 두고’, 『조선녀성』 (2003-9); “ 부부사이례절을 바로 지키자” 『조선녀성』 (2004.-9); “다정한 부부” 『조선녀성』 (2005-2); ‘화목한 가정’ 『조선녀성』 (2006-7).

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녀맹원들은 미제와 일제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미제의 썩어빠진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그를 반대하는 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고 있다.”³⁶⁾

이 같은 대미적대의식과 반미투쟁의 강조는 한국전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급교양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특히 반미계급교양은 경제난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개혁개방의 압력과 자본주의적인 요소 유입에 따른 사상침투를 경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경제난이후 북한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요소 유입과 사상 문화적 침투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의 계급교양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에게 행해진 계급교양은 혁명전통의 학습과 제국주의의 침략 본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혁명전통의 학습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 수령관과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울 것이 강조되었다.³⁷⁾ 계급교양은 우선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립, 압박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어 반제투쟁을 해온 앞선 혁명투사들을 본받아 반미·반제투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양학습은 비록 다양한 주제로 행해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반미·반제 계급교양의 주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속성을 인식시켜 이들 세력에 대항할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

36)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급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췌) 『조선녀성』 (2004-10) ; “계급교양을 짜고 들어-평안남도 청남구 강성동 초급녀맹위원회에서- 『조선녀성』 (2005-9).

37) ‘혁명전통학습을 실속있게 한다’-룡성구역 녀자 및 어린이웃 공장초급녀맹위원회에서- 『조선녀성』 (1974-8).

4.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교양

경제난이후 북한의 최대 과제는 현존사회주의체제와 정권유지이므로 이에 필요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교양이 교양학습의 주요 주체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에 대한 강조는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이 점차 자본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드러나는 폐해 등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도덕교양은 자본주의요소 투입에 따른 폐해지적과 이에 대한 사상투쟁의 강화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기 부르조아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르조아 복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³⁸⁾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도덕교양은 북한주민들이 장사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붕괴되는 기존 사회주의의 질서회복을 위한 것으로 교양학습은 사회주의체도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시켜 이를 지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식의 레의 도덕을 지키는 것은 ...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녀성들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적이며 고상한 우리 식의 레의 도덕을 더 잘 지켜나가야 한다...”³⁹⁾

위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덕에 대한 교양학습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대한 열정과 낙관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38) ‘녀맹원들 속에서 자본주의, 수정주의 사상요소와 생활풍조를 철저히 없애자’ 『조선녀성』(1991-9);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녀맹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 『조선녀성』(1992-5).

39) 『조선녀성』(2004-8) pp.34-35.

두고 있다. 혁명적 열정과 낭만에 대한 강조는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이 지녀야 할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으로서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혁명사업에 열중하라는 독려였다.

“... 우리와 적들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 신념의 대결이다. ...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사회주의가 더욱 억세게 뿌리내리게 하며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신념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한다”⁴⁰⁾

“ 일부 녀맹원들 속에서는 아직도 위축감을 가지고 기백 없이 생활하고 있다. ... 맥없이 주저앉아 신심을 잃고 있는 여맹원들 속에서 다채로운 체육, 오락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하였다. ...”⁴¹⁾

위의 글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한 교양학습은 경제난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체육과 오락 등을 통해 혁명적 낭만과 열정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사회주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한 교양학습은 후세들을 교양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녀교양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향후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3, 4세대의 사상이완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모든 녀성들은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지닌 신념의 강자로 키워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고생도 해보지 못한 혁명의 3세, 4세대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혁명의 대, 사회주의 위업의 대를 깨끗하게 이어나가도록...”⁴²⁾

한편 경제난이후 여성에게 강조된 사회주의 도덕교양에는 조직 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40) “녀맹원들 속에서 사회주의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녀성』 (2005-9).

41) ‘승리의 신심안고 생활을 락전적으로’ 『조선녀성』 (2006-10).

42) ‘녀맹조직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나가자’ 『조선녀성』 (2006-4).

있다.⁴³⁾ 이는 경제난이후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의 참여저조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녀성』의 글 가운데 ‘여맹’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제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입증되고 있다.⁴⁴⁾

“.. 생활조건이 어렵다는 것을 구실대고 시장에 다니면서 조직과 집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나니 조직생활에 빠지는 녀맹원들도 있었다. ..모든 녀맹원들이 동맹생활총화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자면 농사철에 맞게 생활총화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했다... 녀맹원들의 가정방문도 하고 그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 정세와 여러 가지 상식자료들도 알려주고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하여 그들이 조직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참가하게 되었다.”⁴⁵⁾

이 같은 조직 활동의 강조는 북한체제에서 조직생활이 주민들의 교양학습과 동원화 등의 주요 수단으로서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여성에게 강조된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또 다른 내용은 조선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전통적인 예의범절 권유, 언어예절, 미풍양속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 고유의 민족음식, 옷, 풍습, 예절 등을 존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⁴⁶⁾ 이 가운데 민족 고유의 예의도덕과 조선 옷, 민족

43)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워’-장풍군 제 4탁아소 녀맹초급단체사업에서- 『조선녀성』 (1974-8); ‘주동맹생활총화를 짜고 들어’ 『조선녀성』 (1974-9); ‘녀맹생활총화를 실속있게 짓도록’ 『조선녀성』 (1975-3); ‘생기약동하고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구장지방산업종합공장 식료직장 초급녀맹위원회사업에서- 『조선녀성』 (1975-6);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간다’-대관군 량상리초급녀맹위원회에서- 『조선녀성』 (1976-3).

44) “애국의 한길에 바치는 뜨거운 충성-김책시 해안동 초급녀맹위원회 제 7초급단체 녀맹원들- 『조선녀성』 (2004-9); “수령결사용위의 전위조직으로-속천군 광천농장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리창옥동무-” 『조선녀성』 (2005-1)

45)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대로- 신위주시 친선2동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 (2004-9) ; “조직생활지도를 짜고 들어-운흥군 읍가두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 (2005-1).

46) ‘레절과 인품 『조선녀성』’(1989-1); ‘시어머니의 려행길’ 『조선녀성』 (1995-6); ‘렬차에서’ 『조선녀성』 (1996-3); ‘꽃다발’ 『조선녀성』 (1997-1); ‘존대와 의리’ 『조선녀성』 (1999-2); ‘말은 녀성들의 인격’ 『조선녀성』 (1997-6);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 『조선녀성』 (2001-12);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덕’ 『조선녀성』 (2000-5),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레절’ 『조선녀성』 (2000-5).

음식 즐기기 등의 미풍양속고수는 민족성과 주체성을 살리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 요소로 강조되었다. 북한에서 민족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한 것은 주체 확립시기 즉 한국전 후 북한실정에 알맞은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었다.⁴⁷⁾ 이런 점에서 현존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 대말이후 조선전통에 대한 강조는 1950년대 중후반 주체 확립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유지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난이후 조선전통과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요구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부르조아 사상 문화침투책동이 ... 사회생활의 여러분야로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결혼식을 선군시대에 맞게 우리식으로 함으로써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적 생활문화가 온 사회에 꽃피어나도록... 부르조아 사상문화는 사람들 속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사람들 속에서 부패 타락한 생활방식을 유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어버리는 위험한 독소... 사람들의 량심과 초보적인 도덕의리마저 저버린 저렬한 인간추물로 만들어 인류를 룬리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⁴⁸⁾

이와 같은 경제난이후 교양학습의 주 내용은 북한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징후들을 사회주의생활방식의 고

성』(2001-1); ‘자랑합시다’ 『조선녀성』(2002-6); ‘우수한 우리의 레의도덕, 미풍 양속을 생활로 꽃피워’ 『조선녀성』(2001-3); ‘웃사람에 대한 레절’ 『조선녀성』(2001-4);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조선녀성』(2002-5); ‘모교에 대한 사랑과 스승에 대한 존경’ 『조선녀성』(2002-8); ‘《수고하십시오》’, ‘우리 말 배우기와 어머니’ 『조선녀성』(2001-5);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 옷-조선치마저고리’ 『조선녀성』(2001-5); ‘조상전래의 언어 레절’ 『조선녀성』(2003-2); ‘우리 것이 제일입니다’ 『조선녀성』(2003-6); ‘인사레절’ 『조선녀성』(2002-1), “좋은 인사레절-선절’ 『조선녀성』(2004-5); ‘동방레의지국의 아름다운 녀성들로’ 『조선녀성』(2002-4); ‘우리 식의 음식문화’ 『조선녀성』(2002-12); ‘우리의 것을 꽃피워갑니다’ 『조선녀성』(2003-4); ‘우리식 음식문화를 꽃피우는 주인으로’ 『조선녀성』(2003-10); ‘우리 것을 알고 꽃피워가자’ 『조선녀성』(2003-11).

47) 『김일성저작집』 제 7권 pp 162-163; 『김일성저작집』 제 9권 pp 477-478.

48) ‘부르조아 사상문화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쪼먹는 위험한 독소’ 『조선녀성』(2006-10).

수를 통해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부르조아 사상문화침투에 대항하여 혁명적 동지에, 의리, 혁명적 양심에 기초한 건전한 도덕 기풍, 생활기풍 등 집단주의도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강조되는 사회주의도덕의 주요 내용은 “...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의 리익에 자기 리익이 있다는 것을 깊이 리해 해야 한다” 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집단주의 원칙실천에서부터⁴⁹⁾ “사회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우수한 조선식 인사 레절, 옷차림 레절, 식사 레절 등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는 버스, 기차, 도로, 교통질서 등 등의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⁵⁰⁾

이상 북한여성에게 행한 교양학습은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도덕교양 등 주제별로 다양한 내용을 시기 별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해 왔으나 궁극적으로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체제순응적인 여성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여성을 국가가 원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 사회

-
- 49) ‘생활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조선녀성』 (1959-10); ‘양보’ 『조선녀성』 (1996-1); ‘나와 집단’ 『조선녀성』 (1998-2); ‘자신보다 동지를’ 『조선녀성』 (1998-3).
- 50) ‘응당 지켜야 할 일’ 『조선녀성』 (1983-1);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실속 있게’ 『조선녀성』 (1986-2) ‘거리에서 레의 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자’ 『조선녀성』 (1988-6); ‘경기장에 가는 날’ 『조선녀성』 (1995-2); ‘역 기다림칸에서’ 『조선녀성』 (19-5.3) ; ‘이웃간에’ 『조선녀성』 (1997-3); ‘이웃간에 지켜야 할 레절’ 『조선녀성』 (1997-4); ‘의무에 앞서 생활로’ 『조선녀성』 (1998-4); ‘레절과 도덕이 바른 조선 녀성들의 민족적 우수성’ 『조선녀성』 (1998-5);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교통규정’ 『조선녀성』 (1998-6); ‘걸어 다닐때’ 『조선녀성』 (2001-10); ‘식사레절을 두고’ 『조선녀성』 (2001-7); ‘너맹일군과 레절’ 『조선녀성』 (2001-11) “빠스와 전차, 전동차에서 지켜야 할 도덕” 『조선녀성』 (2005-3); “남의 일이 아니었다” 『조선녀성』 (2005-4); “극장과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레절” 『조선녀성』 (2005-6); “열차에서 지켜야 할 레절” 『조선녀성』 (2005-7).

화시키기 위한 교양학습의 구체적인 학습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교양학습 방식 : 대상별 맞춤 교육방식

북한여성들에게 행한 교양학습은 강의와 각종 교양관련 문헌들에 대한 독해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독보이다. 학교와 직장 등 북한의 모든 조직에서의 일과는 당 정책과 방침을 독보를 통해 습득하고 각자 방송과 신문에서 듣고 본 것을 발표하는 방식의 사상교양으로 시작된다.⁵¹⁾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교양학습이 되도록 여성들이 학습회, 독보회, 강연토론회 등 모임을 결성, 이에 직접 참여하는 읽은 책 발표모임, 영화감상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가능한 많은 여성들에게 흥미를 유발, 적극성을 유인하기 위해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직접 자료를 그들 각자 수준과 흥미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읽고 발표하게 하는 학습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교양학습은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령, 학력, 계층 등 대상별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이루어졌다.⁵²⁾ 즉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은 나이와 지식수준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 등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기본 형식으로 교양, 강연과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모임선동 등의 다양한 교양방식을 차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예컨대 학습을 통한 교양사업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져 해설강사, 선전강사가 집단 내 구성원들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학습중간에 시, 노래와 춤을 적절히 배합한 예술 선동 식 등의

51) '-평양담배공장초급녀맹위원회-' 『조선녀성』 (1974-6).

52) '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 『조선녀성』 (2005-8); '계급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서흥군 서흥읍 제 5녀맹 초급단체에서- 『조선녀성』 (1975-8).

방식으로 행해지게 하였다.⁵³⁾

또한 여성들의 학습기풍을 세우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학습방식으로 정기적인 강습체계를 세우고 이동학습, 경험 교환 회, 방식상학 등을 널리 조직 진행하였다. 이동학습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녀맹비서, 리 녀맹비서를 비롯한 녀맹 유급일군들과 녀맹 초급단체 일군들까지를 대상으로” 혁명사업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 회를 조직하는 한편 직접 실물로서 사업방법을 배워주는 방식상학 등의 방식으로 교양학습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⁵⁴⁾

1. 예술선동방식

예술선동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선전선동방식이며 특히 조직생활과 사상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학력과 충실성 정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행해진 교양학습방법이다. 예컨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로작과 공동사설 등의 내용을 노래와 시의 형식으로 대본을 만들어 학습시키는 것이다.⁵⁵⁾

예술선동방식은 경제난이후 조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상 통제도 이완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는 교양학습방식이었다. 경제난이후 장사 등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생계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조직생활은 주로 생계활동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노약자 위주로 되면서 교양학습방식으로서 예술선동은 더욱 선호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조직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해 교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⁵⁶⁾

53) ‘녀성동맹사업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여’ 『조선녀성』 (2000-6)

54) ‘여러 가지 형식으로 녀맹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인다-안변군 오계리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 (1972-10)

55) ‘노래 속에 전진하는 녀맹조직’-곽산군 월옥리초급녀맹위원장 김옥숙동무의 사업에서- 『조선녀성』 (2001-1)

56) 경제난이후 조직을 통한 교양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극

“ ...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생활이 어렵게 되니 일부 녀맹원들은 바닷가로, 장마당으로 나갔고 출판보도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상교양 사업에서 일정하게 지장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 ” 이를 위해 ... 로작의 해설체감을 만들고 해설내용도 짧은이로 이루어진 초급단체와 늙은이로 이루어진 초급단체의 특성에 맞게 만들었고 또 매 초급단체가 하나의 해설대가 되어 내용 해설과 사이사이에 시, 노래, 춤을 적절히 배합하여 예술 선동식 학습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 57)

또한 예술선동방식이 선호된 것은 교양학습을 보다 쉽고 흥미 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북한의 문헌 속에는 ‘여맹’의 교양학습을 노래보급, 노래해설, 시 낭송 발표모임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으로 행한 결과 여성들의 조직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58) 예술선동의 교양학습방식은 이후 “음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 정책 관철에도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이라는 김정일의 지적에 따라 선전선동의 정치사업의 형식인 음악정치로 구현되었다.

2. 교양 망 구성

여성들의 교양학습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글은 [조선녀성]에 많이 나타나있다. ‘교양망 운영도 실리가 나게-대동군 시정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2002-12);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대로-신의주시 친선2동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2004-9); ‘어디에 기본을 두었는가-평성시 두무1동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조혜숙동무의 사업에서’-(2004-11); ‘조직생활지도를 짜고 들어-운흥군 읍가두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2005-1); ‘량만에 넘쳐-개천지구 탄관 연합기업소 개천탄광 초급 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2005-7).

57) ‘2000년대의 녀맹일군-강령군 녀맹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숙동무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2001-3).

58) “ ... 칭찬받는 며느리. 딸들을 보기 위해 재미나는 예술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학습회. 강연회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며 저마다 앞자리를 다투까지 하게 되었다.” ‘교양망 운영도 실리가 나게-대동군 시정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 (2002-12).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은 학습교양망의 운영이었다. 교양 망 운영은 사상교양과 문화계몽의 강화를 위해 계층별 해당기관과 연계 속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여성들의 교양학습을 위해 일반교양 망에 그들을 적극 참여시켜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소질을 갖추도록 모성보호 및 아동교양문제들을 각종 씨클, 위생 강연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진행하는 것이다. 농촌 ‘여맹’단체에서는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여성들과의 사업을 통해 낭비현상들과 낡은 봉건유습 등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가정살림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도록 식량소비기준을 세우게 하는 등의 교양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업주부들로 구성된 가두여맹은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및 생산협동부문의 가정부인열성자회의와 직장별, 아파트 별 가정부인 협의회 등을 통해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을 교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세포로서의 가정생활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쌀, 석탄 등을 계획적으로 소비하며 이웃과의 화목, 부모에 대한 존경, 어머니로서의 소양을 높이도록 교양하였다.⁵⁹⁾

특히 교양 망 운영은 경제난이후 조직 활동의 부진과 사회통제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상교양이 이뤄지도록 연령별, 수준별 학습체계를 세우고, 학습이나 강연회에 결석한 여성들을 다시 모임을 결성하여 학습과 강연 진후에 새 노래보급, 독창, 독주, 독시, 시 낭송모임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⁶⁰⁾

59) 이상의 사업들은 독보란. 어머니학교, 각종 씨클 및 각종 경험 교환회<아동교양, 절약, 저축, 부업조직사업경험>등을 통하여 가정부인들의 사상개조와 도덕 교양 및 문화소양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평북도 녀맹 집중지도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 고정자, 『조선녀성』(1957-12).

60) “교양망 운영도 실리가 나게-대동군 시정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2002-12).

3. 군중사업방식, 참관방식

북한여성에게 행한 또 다른 교양학습방법은 군중사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중사업방식은 1970년대 사회주의 대 건설시기 혁명방식으로 항일유격대 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조직생활과 교양사업을 주민들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그들과 공감을 통해 사상교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녀맹위원회 일군들은 .. 녀성 군중 속으로 들어가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 밑에 내려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녀맹원들의 실정에 맞게 항일유격대식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낮에는 그들과 같이 모내기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가정혁명화와 자녀교양 문제를 가지고 의논도 하고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방도도 토론하는 등 개별교양사업도 함께 밀고 나갔다.”⁶¹⁾

한편 교양학습은 각 지역별로 김일성, 김정일 등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 선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혁명사적관 내지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계급교양관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혁명사적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김일성을 비롯, 김정일, 김정숙 등 북한의 백두산 3대장군의 혁명 활동도록 개시, 김일성부자의 동상, 초상화를 비치하여 지도자의 영도성과 위대성을 주입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이를 거점으로 지도자의 로작 학습회, 혁명 전통연구 토론회,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등을 갖기도 한다.⁶²⁾ 최근에는 대미·대일비난의 거점으로서 활용되는 “계급교양관”을 신축하여 외세를 배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⁶³⁾ 계급교양관은 경

61) ‘사상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조선녀성』 (1974-7); ‘녀맹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염주군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녀성』 (1975-11).

62)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한다’-명간군 읍가두 제 2녀맹초급단체에서- 『조선녀성』 (1974-11).

63) 북한당국이 근래 반미의식 고취를 위한 계급교양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계급교양관의 건립과 이에 참관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중앙계급교양관의 경우 2002.7.25일 개관당일부터 2005.5.17까지 참관자가 144만 명이였다.”2005.5.17 중방 보도. 06.3.23 평양방송, 3.28 조선중앙텔레비죤, 6.21. 조선중앙통신.

제난이후 외부문물유입과 의식변화에 따라 사상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 지역에 건립, 미·일의 침략적 만행과 관련된 사진, 그림, 증거물, 실물자료 등을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사상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V. 결론

이 글은 북한여성이 양성불평등의 지위 속에 사회노동과 가사노동 등 이중의 역할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를 살펴보았다. 북한체제는 사상우위의 사회로서 공식 규범 혹은 통치담론이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대중학습체계라는 성인 교육망을 통해 전체 사회에 주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사상교양학습은 주민을 사회와 국가가 원하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사회화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북한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양태 등은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체계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여성들의 주요 교양학습기관인 여성대중조직,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의 교양학습체계를 중심으로 교양학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의 고찰을 통해 북한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맹’을 중심으로 행해진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은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도덕교양 등 주제별로 다양한 내용을 대상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의 교육방식을 통해 북한사회가 원하는 구성원 즉 주체형의 인간을 만드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주체형의 인간은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시기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것들 예컨대 사회주의체제건설 시기에는 이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난이후에는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사회로까지 확대 요구하는 것 등

을 성실히 이행하는 여성이다. 이를 위해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충실성교양, 각종 난관에도 사회주의체제는 승리한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의 사회주의 도덕교양, 대내외 적과의 투쟁의식을 강화하는 계급교양, 여성본연의 임무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을 위한 교양 등의 내용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여성의 교양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과 국가가 주는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 체제순응적인 마인드를 가진 구성원으로 사회화시켜 여성의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 같은 목적아래 체계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재생산하고자 했다. 그 결과 북한여성은 불평등한 처우 속에 이중역할부담을 당연한 현실로 수용하는 체제순응적인 멘탈리티를 지녀 경제난이후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질서유지에 저항의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인 생활방식과 의식이 확산되고 북한정권이 과거와 같은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여성의 의식도 점차 변화가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일성, 1982, 『김일성저작집』 제7권, 제9권,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편, 1975, 『경제사전』 평양: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 극동문제연구소, 1983, 『북한전서』 중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김승문, 2006,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 정치사상생활방식의 근본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52권 제 2호.
- 사회과학출판사, 1989,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서울: 백산서당.
- 국토통일원, 1990, 『북한법령집』 1권 서울: 대륙연구소.
- 『로동신문』 2006.3.8
-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 1946.1-2006.12 .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 조선중앙방송. 2005.11.17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 박현선 2003,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전상인, 1993, 『북한의 가족정책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이미경, 2004,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 47권2호(2004년 통권 116호).
- 정성임, 2003, “조선민주녀성동맹”,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 한울아카데미.
- Lee, Mi-kyung(2005), The Issue of North Korean women by examining gender awareness of female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5 N5,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1992) 『北朝鮮 -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동경대 출판부), 유영구(역), 1995,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The Educational Lea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Women: Centering around the Activity of North Korean Women's Alliance

Lee, Mi-kyung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Abstract

This paper examine the educational lea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women into figuring out that they have taken the double burden under the discriminatory social structure for granted and the cause of it. In North Korea, in which the ideology have been taken priority over all, a learning of thought education have been regarded as a means of socialization have made the North Korean members of the society, passive being who have to obey the dictation without condition. The educational lea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women aims to make a woman who successfully carry out multiple roles which the system of North Korea encourages or needs.

In this respect, the main contents of educational learning system of the North Korean women is loyalty to the leader, socialistic morality, revolutionary optimism, women's traditional role, a class struggle, etc.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women have accepted their conditions without awareness having a double burden with social mobilization and coerced labor under the sexually repressive and discriminative social environment. Also this conformable mentality of North Korean women t i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hift in their awareness such as critical awareness and comprehensive denial over patriarchy while women's status and role were changing after the economic crisis.

Keywords : the North Korean women, the educational learning system, the conformable mentality, the double burden, patriarchal socialism]